스님 출신 美-泰 통역 미군, 군종법사 활약

태국 출신 송크란 와이야카 법사
13세 때 출가…20년 비구 생활
마음챙김 신체훈련 등 진행하며
포교함께 장병 정신 건강 챙겨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에서 온 스님들에게 군종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송크란 대위.
사진출처=스트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지난 2월 27일부터 태국에서 진행된 아시아 최대 군사훈련 중 하나인 코브라 골드 훈련에서 미군과 태국군 간의 통역관이자 문화대사로 활약한 군종법사가 화제다.

3월 5일 미국의 '스트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는 태국출신의 미군 군종법사인 송크란 와이야카 대위의 이야기를 특별보도했다.

송크란 와이야카 대위는 현재 미국에 소속된 3000명 이상의 군종장교 중 10명뿐인 불교 군법사 가운데 한 명이다. 미군에 복무한지 13년차인 송크란 대위는 입대 전 20년이 넘게 출가비구로서 활동했다.

와이야카 대위는 "미군에 입대한 이유와 태국에서 출가했던 이유는 동일하다"면서 "바로 타인을 위해 움직이고 봉사하기 위함"이라며 군종법사로서의 소명을 소개했다.

송크란 대위는 13세의 나이에 고향인 치앙라이의 사찰에서 출가, 8년 후 방콕에 있는 왓 랏차낫다람 사원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12년 동안 그곳에서 지도법사로 대중들을 이끌었다. 이후 불교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태국 불교사원인 왓 붓다누손 사원에서 10년간 포교활동에 전념하던 중 출가자의 삶만으로는 포교에 제약이 있다고 느껴 환계를 결정했다. 송크란 대위는 "스님을 사찰에만 가둔다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불교 수행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도 내가 쌓아온 경험을 이어가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환계 후 미국의 대학에서 교육 및 정보기술 과정을 공부하던 중 미군의 군종장교 제도를 알게 된 그는 불교 재가법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1년 미 육군 불교군종장교에 임관했다. 송크란 대위는 "나의 첫 번째 임무는 703여단 지원대대의 군종활동이었다. 당시 대대의 구호는 '전선 유지'였다. 그때 나는 대대장에게 '전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송크란 대위는 "건강의 개념이 육체적 측면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측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종법사로서 불교의 포교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장교를 포함한 모든 군인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들의 정신적, 윤리적 안녕을 돌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자신의 모든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간하여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송크란 대위는 현재 군내에서 일반적인 종교행사뿐만 아니라 마음챙김 신체훈련, 무에타이, 요가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곧 전역을 앞둔 그는 "전역 후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돕는 일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종교의 중국화 최우선" 발언 논란

"사회주의 가치 지도" 강조에
종교 대한 중국정부 통제 우려

최근 중국정부가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불교협회장인 옌쥐에(演覺) 스님이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관련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9일 일본의 '도쿄신문', 말레이시아의 '광화일보' 등 외신들은 옌쥐에 스님의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3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중국불교협회 회장 옌쥐에 스님은 "중국불교를 비롯해 중국의 모든 종교전통들은 '종교의 중국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중국의 다양한 종교교리, 규범, 관리 시스템, 예절과 관습, 행동규범 등의 측면에서도 중국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의 중국화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지시사항 중 하나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종교가 현지에 적응하는 현지화가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념에 종교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옌쥐에 스님은 이날 발언에서 "중국 종교계는 그 가르침 안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지도하고, 종교 고전의 중국화, 종교 사상의 중국화, 종교 규율의 중국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융합하는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중국의 종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협에서 발언중인 옌쥐에 스님.
사진출처=교도통신

옌쥐에 스님의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스님은 지난해 10월 우타이산에서 열린 중국불교협회 교육훈련 과정의 기조강연에서 "스님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시진핑 사상을 교육하고 배워야 하며, 모든 종교활동 장소와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당의 관리를 받아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동시에 이슬람교 박해로 문제가 일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대표인 무야세르 토후티 신장 예술연구소 부소장도 동일 석상에서 "모든 소수민족이 중국식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티베트 자치구 부근에서 사찰의 강제 폐사 조치 및 신규 출가자 금지 명령 등의 사건이 있었다. 신장 지역에서도 모스크 철거 등 종교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발언들이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내 종교 정책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싱가포르 불교계, 모스크에 쌀 3만kg

라마단 맞아 자비행 실천
"다양한 종교 존중 정신"



싱가포르 불교계는 쌀 3만kg을 모스크에 전달하며 종교 간 결속과 협력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불교계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모스크 사원에 쌀 3만kg을 보시했다.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TNP스트레이트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불교롯지(Singapore Buddhist Lodge, SBL)는 이날 바알위 모스크(Ba'alwie Mosque)에 쌀 3만kg을 전달했다. SBL이 모스크에 쌀을 기증한 것은 올해로 14년째다.

탄 리 후악(Tan Lee Huak) SBL 회장은 "우리의 보시는 싱가포르 내 다양한 종교 간 결속과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한 자키 모하마드(Zaqy Mohamad) 싱가포르 노동부 선임장관은 "이번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좋은 예"라면서 "또한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는 싱가포르 정신을 보여준다"고 기뻐했다.

바알위 모스크의 이맘 하비브 하산 알-아타스(Habib Hassan Al-Attas)도 "지난해 불교계의 쌀 기부를 통해 토아 파요(Toa Payoh) 임대 주택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었고, 주민들도 매우 기뻐했다"면서 "이번 기부 쌀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오타와 불교계, 살해된 불자가족 위로

가족 7명 중 생존자 1명뿐
모연 11만6000달러 넘어서



비극적으로 살해 당한 스리랑카계 일가족의 집 앞에 추모의 꽃이 놓여있다.
사진출처=포스트미디어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생한 스리랑카계 일가족 살인사건을 애도하며 지역 불교계가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나우토론토(Nowtoronto)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타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리랑카 불교계는 지난 6일 살해된 스리랑카계 일가족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오타와 지역 경찰은 베리간 드라이브 지역에서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911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살해당한 6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6명에 대한 살인 및 1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9세 페리오 데조이사(Ferrio De Zoysa)를 즉시 체포해 살해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피해 일가족은 최근 캐나다에 이주한 스리랑카인들이었으며 데조이사는 가족의 집에서 머무르던 유학생이었다.

데조이사는 7세 아들과 4살 딸, 2살 딸, 태어난 지 50일께 된 갓난 딸과 그들의 어머니, 집에 잠시 방문했던 어머니의 친구까지 총 6명을 살해했다. 유일한 생존자는 아이들의 아버지 다누스카 위크라마싱헤로 그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계는 생존한 다누스카의 치료비와 사망한 가족들의 장례비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모금운동에 착수했다. 이후 하루만에 목표액인 20만달러(한화 2억6380만원) 중 3만6006달러를 모금했고, 지난 9일 기준 11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또 같은 날 팔마도 공원에서 추모 행사도 열렸다. 스리랑카인이자 일가족의 이웃주민인 루완티카(Ruwanthika)는 "나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 유가족이 느끼는 무력감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가 어떻게 앞으로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나"라고 통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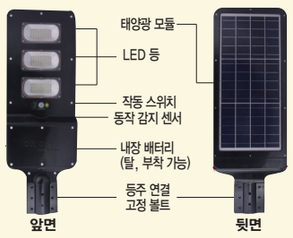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